

# 민주 “‘한일해저터널’은 국익 고려 없는 친일 의제”

### 의원들 “국민의힘 김종인 ‘해저터널’ 공약, 일본 대륙 진출 발판 마련”

### “북 원전 추진’ 낡은 북풍공작 구태정치 사과해야” 한목소리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한일해저터널 공약에 대해 “북풍 물이에 친일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 의혹과 관련해 “제1야당 지도자들이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면서 “낡은 북풍 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

자”고 비난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북한 원전 내용이 포함된 산자부 보고서의 제목 밑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돼있다”며 “이걸 보고도 이적행위다, 게이트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자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가 온다”는 제목의 2018년 보수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2018년 봄. 이것도 이적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전형적인 구태 공작정치”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꺼내든 해저터널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친일’ 구도를 부각하며 화력을 쏟아부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력을 얻지 못한 친일적 의제”라면서 “북풍공작에 해저터널까지, 국익을 고려 않고 선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은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가덕신공항을 반대하다가 부산 민심이 나빠지자, 이를 만회하려고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은 헛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살피지 않는 무성의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민심은 더욱 분노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원전 북풍 공작에 한일 해저터널까지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해저터널로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김 위원장이 말하는 이적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일본의 대륙 진출 발판을 마련하자는 거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보궐선거 그쪽에서 어렵다. 한일전이라는 이야기 나온다”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부산을 찾아 원내대표단-부산시장 연석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거듭 표명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법관 탄핵’ 기자회견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왼쪽부터), 이탄희, 박주미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과 관련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의의회 끝없는 갈등

### 의장 불신임안 철회 놓고 주류-비주류 또 충돌...망자 거론하며 막말도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최근 2개월간 파행을 빚어온 전남도의회가 오는 3월까지 갈등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의장 불신임 철회 동의안이 의안을 발의한 비주류 측과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주류 측 갈등으로 표결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장 불신임안은 김한중 의장의 의회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이른바 비주류 측 도의원 14명이 제출했지만 지난달 28일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도의회 집행부도 이날 제34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의원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철회하려고 했지만, 의원 간 설전이 다시 벌어졌다.

불신임안을 냈던 의원들은 불신임안의 본회의 상정 절차 자체가 잘못됐으므로 철회 절차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회의는 다시 공전했다.

이 과정에서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단상에 올라 “의장 불신임에 동조한 ○○○의원이 돌아가시자 (주류 측이 의안이 발의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될 줄 알고) 껌을 씹으며 좋아했을 줄 누가 아느냐”는 취지의 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분위기는 견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불신임안 제출에 불만이 있던 의원들도 불신임안을 냈던 의원들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논쟁은 거칠어졌다.

결국, 불신임안 철회 동의안을 처리할지 말지를 놓고 표결까지 했고, 철회 동의안은 처리하자는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해 오후 본회의로 이를 넘겼다. 하지만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이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후 본회의에는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아 본회의는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회됐다. 불신임안도 다음 회기인 3월로 넘어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 탄핵소추안 내일 표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전남 대표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했다.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51명이 참여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이병훈 “전남대병원 이전·신축 논의, 심각한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일 “최근 전남대병원의 새병원건립추진단 발족과 더불어 병원 증개축과 이전·신축 등에 대한 일부 논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병원은 2000년 이후, 본관을 비롯한 건물들의 노후화로 매년 개보수 비용 증가와 과밀화, 병상 및 주차장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새 병원 신축·이전 논의를 해 왔다.

이 의원은 “외지에서 오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있는 기관을 외지로 내보내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광주 원도심은 전남도청 이전이라는 큰 공백을 만들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동명동, 양림동 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모처럼 도시재생의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병원의 이전 논의는 또다시 원도심을 쇠퇴시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 김희재, 부산 日 영사관 앞 소녀상 도로점용 허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6월 29일 부산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했지만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녀상 무상점용 조례 위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김승남 “내수면 양식 공동위판장, 수협이 운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위판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협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18년 7월



부터 현재까지 민물장어 산지가격은 1kg당 3미 기준으로 2만2100원에서 4만 원까지 급격한 가격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용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 동구 대인동, 싹 땀

회사 사장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유
- ▶ 지하 1층 공사 중,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문의. 010-3605-5000